

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과도 대담했는데, 미·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가.

“이달 28~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(G20)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가능성은 커보인다. 그러나 이른바 빅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”

그럼 결렬될 것이라고 보는가.

“아니다. 두 사람은 결렬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다.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-김정은 회담처럼 결렬도 아니고 합의도 없는 어정쩡한 결말이 나올 수 있다. 그러나 트럼프는 재선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와 작은 정치적 트로피라도 들고 귀국하고 싶어할 게 분명하다. 시진핑은 중국몽이란 중국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특유의 실용주의적 타협을 받아들일 수 있다. 국내외 체면치레가 가능한 범위 내의 타협이다. 이른바 스몰딜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”



트럼프. [AFP=연합뉴스]